

電波로 오존層 保護, 美·日 政府가 共同 研究에 合意

美 ·日 두 나라 政府는 電波를 이용한 오존층의 보호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地上 40~80km의 上空에 強力한 短波를 照射하면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가 방지될 가능성이 실험실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것을 실제 상황에서 확인하자는 것이다.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는 심각한 地球 環境 파괴를 유발하는 문제로 대두되어 프레온의 使用 제한과 대체 물질 개발에 많은 연구

가 進行되고 있다.

'92년부터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돌입할 이 계획은 8년간 계속될 것이며, 美國에서는 알래스카 大學과 海洋大氣局이, 日本은 通信綜合研究所와 環境研究所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

알래스카 地方에 大型短波照射施設을 갖추고 오존층 파괴가 심한 上空에 강력한 短波를 쏘아 오존층 파괴가 억제되는 영향을 실증, 확인하는 연구이다.

〈日/經新, 91.8.22.〉

日本 通産省, 외국 기업이 참가하는 研究組合에 稅制 혜택

정 부의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研究組合에 외국 기업이 참가하는 것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역 마찰 등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 기업이 회원이 되어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조합에는 세계상의 우대 조치를 하는 「鑛工業技術研究組合法」 개정안이다.

몇 개의 企業이 참여해서 특정한 연구 과제를 공동 연구하는 技術 연구 組合은 현재 68개로, 이 중 외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조합 1개뿐으로 日本 연

구 조합의 폐쇄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組合企業 등으로 基金을 설립하는 것, 그 基金의 運用 受益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企業과 組合이 모두 세계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연구 성과의 特許를 共有, 우선 使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法 改正의 骨字로 하고 있다.

外國企業에 대한 門戶開放이 될 이 조치는 연구 조합의 폐쇄성을 脫皮하고 국제적 공동 연구 적극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日/經新, 91.8.28.〉

電力 저장용 리튬 電池 개발에 10年間 140억 엔 投資

電 기 자동차용과 發電所의 電力負荷平準化를 위한 가정용 電力 저장 장치로, 輕量小型 리튬 電池를 개발하기로 日本 通産省 工業技術院이 결정했다.

10년에 걸쳐 140억 엔을 투자하게 될 이 연구는 大型 프로젝트 「Moon Light 計劃」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이를 위하여 연구 팀을 두 개로 나누어 수행할 것이라 한다.

電氣 자동차용으로는 走行距離 10만km, 최고 시속 120km, 平均 속도 70km, 1回 充電走行距離

689km(時速 40km에서), 10Mode 주행시 230km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電力 저장용으로는 耐用年數 10年, 20kWh에서 電池의 용적을 100리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電力供給系統의 負荷를 平準化하기 위한 電力 저장용을 일반 가정에 보급하여 夜間 電力을 이용하도록 하며 電氣 자동차의 充電用도 겸하도록 設計를 계획하고 있어 머지않은 電氣 자동차의 普及에 대비하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日/日工, 91.9.2.〉